

운활소식

SK (주)

SK 텔레콤, 네이트 플랫폼 수출

SK텔레콤(사장 表文洙//www.sktelecom.com)이 국내 벤처업체들과 함께 개발한 무선인터넷 기술을 해외에 수출한다.

SK텔레콤은 30일 오전8시(국내시각14시)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선발 이동통신사업자인 펠레폰社에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네이트 서비스 시스템과 단말솔루션 및 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1천만불 규모의 무선인터넷 공급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네이트 서비스 운영시스템인 포탈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로커스의 게이트웨이 솔루션 및 멀티미디어 메시징 솔루션 ▲유엔젤의 콘텐츠 다운로드 서버솔루션 ▲XCE의 터미널 플랫폼인 SK-VM ▲네오애펀의 이미지압축 솔루션 ▲HP의 서버 및 현지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묶어 터키방식으로 공급하게 됐다.

따라서 펠레폰社는 SK텔레콤으로부터 플랫폼 설계와 설치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 등을 전수받고 올10월부터는 멜로디, 그림친구, 멀티미디어 게임,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등 최첨단 무선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과 관련 SK텔레콤 무선인터넷부문장인 鄭萬源 상무는 "NTT DoCoMo의 I-mode, 쉐콤의 브루 및 선마이크로시스템의 자바 등 세계적인 무선인터넷 단말표준을 보유한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획득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무선인터넷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동안 많은 국내벤처업체들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도나 인력, 자금력 등의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고 "이번 계약은 대기업과 벤처업체와의 해외진출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선인터넷 솔루션은 장기에 걸친 라이선스 계약으로 매년 고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세계적인 기술표준으로 자리잡을 경우 직·간접적인 수익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계약은 국내IT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계약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펠레폰社는 가입자 185만명에 시장점유율32%를 보유한 이스라엘 국영이동통신사업자로 선진적인 무선인터넷 기술을 도입,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작년 9월 SK텔레콤에 사업협력을 요청한 뒤 12월에 사업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3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SK ZIC 4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8,000명의 남녀를 개별면접한 결과에 따르면 SK가 만드는 윤활유 "ZIC"가 4년 연속 윤활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002.3.6일 발표했다.

1999년 이래 발표하기 시작한 "한국 산

**윤활소식**

업의 브랜드파워 1위”에서 SK의 “ZIC”는 다른 경쟁사와 현격한 차이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윤활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ZIC”는 소비자가 직접 뽑아주신 탑 브랜드로서 그 의미를 크다고 볼 수 있다.

“바꾸세요 ZIC”에서 시작하여 “소리가 좋은 엔진오일 ZIC”, “끝까지 좋은 소리 ZIC XQ”에 이르기 까지 엔진오일 “ZIC”는 모든 운전자가 희망하고 있는 조용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드리는 제품으로 운전자가 먼저 찾는 제품이 되고 있다.

**LG-Caltex 정유(주)**

**LG칼텍스정유, 질서월드컵 교통캠페인 전개**

LG칼텍스정유(대표 許東秀 대표이사 CEO 겸 LG에너지 회장)가 질서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찰청과 함께 “질서월드컵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

4월22일 수원역 앞 캠페인을 시작으로 월드컵 개최 도시를 중심으로 6월 15일까지 운전자 및 도보 행인들을 상대로 교통안전과 질서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다.

수원 경찰서 소속 경찰과 지역 녹색 어머니회 회원, 모범운전자협회 회원 및 LG칼텍스정유 임직원들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안전띠는 ON, 휴대폰은OFF” 어깨띠를 두르고 안전띠 생활화와 운전 중 휴대전화 안하기, 주

정차 질서 확립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월드컵 기간 동안 실시될 자가용 자동차 자율적 5부제운행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부탁했다.

LG칼텍스정유는 질서 월드컵의 동참 열기를 높이기 위해 차량에 “안전띠는 ON, 휴대폰은 OFF” 스티커를 부착해 주었으며, 운전자와 도보행인들에게 교통안내 지도, 휴지, 차량 전면 유리 가리개, 부채, 생수, 이클립 등의 홍보물을 무료로 제공했다.

LG칼텍스정유는 29일에는 인천 고속버스터미널, 5월 3일에는 대구백화점, 5월 7일에는 인천공항 그리고 5월중 대전, 광주, 부산, 서울 잠실야구장, 서울 남산터널 등 주요 지역에서 각 지방경찰청 및 지역 유관단체와 함께 월드컵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EHS 통합정보시스템 정유/석유화학 업계 최초 구축**

LG칼텍스정유(대표 許東秀 대표이사 CEO 겸 LG에너지 회장)가 환경(Environment), 보건(Health), 안전(Safety)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웹(Web) 기반의 EHS 통합정보시스템을 정유/석유화학 업계 처음으로 개발, 가동한다.

LG칼텍스정유의 EHS 통합정보시스템은 주사업장인 여수공장의 환경, 보건, 안전을 위해 관리하는 대기, 수질, 폐기물, 개인건강정보관리, 사고관리 등 70여 개의 주요 항목을 통합하여 웹페이지 상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또한 정부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배출량 총량규제’ 등 사전 예방개념의 환경정책을 적극 수용한 시스템으로, 각 공정별로 NOx

**윤활소식**

(질소 산화물), SOx(황 산화물) 등의 환경배출 현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준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잠재적 환경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환경 관련 법적 기준치의 20% 수준으로 환경관리를 하고 있는 LG칼텍스정유는 이번 EHS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자체 기준 초과 빈도를 5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 사고 ZERO화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30년 이상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 주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고관리에서부터 작업관리, 안전관찰관리, 안전교육 등 안전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 초우량 기업과 같은 수준까지 안전 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보건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건강 상담을 할 수 있어 건강 상담률을 90% 이상 향상시키는 등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칼텍스정유는 이번에 구축된 EHS 통합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시설의 보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 환경, 보건 등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이와 같은 EHS 시스템의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셀석유(주)**

**셸, 합병 통해 최대 윤활유 회사 구축**

로열더취/셸 그룹(Royal Dutch/Shell Group) 산하의 셸 석유회사(Shell Oil Company)는 2002년 3월 25일 펜조일 케이커 국영회사(Pennzoil-Quaker State Company)를 주당 22달러의 조건으로 인수합병한다고 밝혔다.

로열더취/셸 그룹 경영이사 겸 석유제품 사업 총책임자인 폴 스킨너(Paul Skinner)는 "단일 기업으로서 세계 최대인 펜조일-케이커와의 합병으로 셸이 미국은 물론 세계 윤활유시장에서 최대의 기업으로 발돋움했다"면서 "미국 내 석유제품 사업도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독일의 RWE DEA나 미국의 텍사코(Texaco) 지분 인수에 이은 이번 합병의 성사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석유사업 부문의 입지와 역량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라는 것이 셸 측의 입장이다.

펜조일-케이커와의 1주당 22달러의 합병 조건은 3월 22일 뉴욕 증시에서 주당 15.49달러에 거래되던 것에 비해 약 42퍼센트의 프리미엄을 더한 것이다. 총 인수액은 18억 달러에 이르며, 셸 석유회사는 펜조일-케이커의 부채도 인수하게 된다.

합병 완료를 위해서는 펜조일-케이커 주주들의 동의와 관계 당국 및 사법기관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합병은 2002년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합병 완료 1년 후부터 셸의 수익과 현금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내 셸 석유제품 담당 총책임자인 롭 라우

## 윤활소식

츠(Rob Routs)는 “미국 승용차 엔진오일 부문의 최고 브랜드인 펜조일과 케이커를 인수함으로써 하볼린(Havoline)의 수요를 대체하고 디젤엔진용 오일 부문에서 셸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셸의 앞선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펜조일의 브랜드 파워의 만남은 최고의 전략일 것이며, 셸이 미국 윤활유 및 자동차 정비업계에서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2004년까지 연간 1억 4천만 달러의 세전 이익을 이번 합병을 통해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해 합병을 위한 비용은 1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펜조일-케이커의 짐 포슬(Jim Postl) 회장은 “펜조일의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계기”라는 입장이다. 포슬 회장은 “펜조일-케이커가 업계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사업규모와 광범위한 제품-서비스, 탄탄한 재정상태를 보유한 기업의 일부가 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시기적절하고 원활한 합병작업의 완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펜조일-케이커는 미국 셸 석유회사의 일부로 합병이 되어 텍사스의 휴스턴에 근거를 두게 된다.

미국 셸 석유회사는 자동차 및 산업 부문에서 일반 소비자는 물론 기업을 대상으로 연료, 윤활유, 냉각제 생산 판매는 물론 관련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계 선두권의 기업이다. 회사는 또한 정유소, 파이프라인 등을 관리운영하면서 미국 서부에서만 약 9,000개의 가맹 주유소망을 보유하고 있다. 셸은 13,000개의 석유제품 판매 가맹점을 가진 모티바 엔터프라이즈 LLC (Motiva Enterprises LLC)의 지분을 50% 보유

하고 있기도 하다.

셸 석유회사는 로열더취/셸 그룹의 일원이다. 그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shell.com](http://www.shell.com)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펜조일-케이커 국영회사는 세계적인 승용차용 제품회사로, 90여개 국 가운데 20개국에서 1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1,3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펜조일’과 ‘케이커’는 미국 내 자동차용 윤활유 부문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다. 또한 펜조일-케이커의 자회사인 지피루브(Jiffy Lube)는 세계 최대의 윤활유 교체 프랜차이즈 업체다.

## S-OIL (주)

**S-Oil, 초고급 윤활기유 생산능력 2배 확장키로**

S-Oil은 3/22일(금)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초고급 윤활기유의 대량 생산체제를 갖춰 기존생산량을 배가(12,000B/D → 26,000B/D)하여 회사의 부가가치를 증대 시키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신규사업은 대규모 투자 없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용, 일부 공정을 개선하여 이루어 짐으로써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S-Oil측은 밝혔다. 회사관계자는 아시아지역의 경제회복에 발맞추어 이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S-Oil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윤활기유 사업은 차세대 엔진오일의 필수요소인 저공해 고연비를

### 윤활소식

실현할 수 있는 초고급 윤활기유를 대량 생산하는 사업으로 아시아지역 타정유사에서 추종이 불가능한 규모라는 설명이다.

회사측은 새로 생산될 초고급 윤활기유의 가격이 기존 제품에 비해 높은 premium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큰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S-Oil 1분기 흑자전환

S-Oil은 18일 올 1분기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지난해 4분기 적자에서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S-Oil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각각 374억원과 536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 1분기에 각각 840억원과 97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매출액도 지난해 4분기 1조6644억원보다 293억원 늘어난 1조693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년동기와 비교해서 S-Oil의 올 1분기 경상이익은 189.7% 증가한 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1.9%와 50.9% 감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석유제품 시장은 공급과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 가동률을 5~10% 낮췄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대다수 정유사들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S-Oil은 지난해 4분기를 고비로 수익성이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배럴당 평균 3~4달러이던 크랙 스프레드(벙커C유와 경유 및 등유의 단순 평균 가격차)가 올 1분기 들어 5.1달러로 회복됐다는 것이다.

S-Oil은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크랙 스프레

드가 3~4달러 선에서 바닥을 찍고 상승 기조로 돌아섰다"며 "앞으로 지난해 수준인 배럴당 8달러 선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S-Oil의 수익 개선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

#### 마니산 등산 실시

협회에서는 2002년 4월 12일(금요일) 마니산 등산을 실시 했습니다. 마니산(마리산)은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에 있는 산이며, 강화도는 한강하구에 위치하여 고려조는 물론 조선조에서도 국토의 핵심인 중부지역을 옹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중요한 섬입니다. 이 중에서 참성단은 단순한 제단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될 수 있는 바로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이 서린 천단(天壇)으로서 천지신명의 감응을 얻고 근본에 보답하는 보분의 윤리를 깨우쳐 주는 신령스러운 곳이며, 우리 민족과 한울과의 연결고리 구실을 해주던 경주의 첨성대처럼 기초는 하늘을 상징하여 둥글게 쌓고 단은 땅을 상징하여 네모로 쌓아 하원상방형을 이루어 천지인합일(天地人合一)의 윤리를 간직한 제천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산중에 기가 센곳중에 한곳이므로 참석하신 모든분들이 마니산의 충만한 기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흐린관계로 좋은 경치구경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참석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들의 친목도모와 생활하는데 새로

**윤활소식**

운 활력소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2002년 환경의 날 행사, 전국에서 다채롭게 개최**

2002년 6월 5일(수) 환경의 날을 맞아 정부공식행사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갖는 것을 비롯해 전국에서 다채로운 환경행사가 전개된다.

지난 '72년 UN은 제27차 UN총회에서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보전의지를 드높이고자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여 매년 기념식을 갖고, 6월을 「환경의 달」로 정하여 이 기간동안 환경보전캠페인 등 각종 환경행사를 전개하여 왔다.

법정기념일로는 올해 7회째를 맞는 「환경의 날」 행사는 월드컵이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와 함께 개최되어 우리나라의 환경 이미지와 환경보전 노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환경의 날은 “지구에게 복원의 기회를!(Give Earth a Chance!)”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며, 정부 기념식을 위시하여 전국 각지에서 이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환경보전공모전, 환경사랑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된다.

정부 기념식은 6월 5일(수) 오전 9시부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 민간,종교,여성단체,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보전시범학교, 군장병, 산업체 임직원 등 약 3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거행되며, 이 자리에서 그간 환경보전에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 31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SK(주) 대통령표창, S-Oil(주) 국무총리표창)

이 자리에서 이 한동 국무총리는 그간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개발 원칙의 정립과 상수원 수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3대강 특별법 제정 등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환경질의 개선을 위해 푸른하늘 21특별대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월드컵과 가을에 개최되는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를 환경친화적으로 치루어 내기 위해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환경홍보 대사라는 사명감으로 친환경적인 국제경기대회의 운영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주) 한발**

(주)한발의 상호가 다음과 같이 2002년 5월 15일부터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변경전	변경후
(주)한발	(주) 한국 발보린

주) 연락처 및 기타 모든 사항은 변경 없음.

**신규회원 가입**

지난 2002년 4월 30일 극동유화(주) (대표 : 안종원)가 협회 회원 가입신청을 하여와 2002년 5월 1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 신규회원으로가입이 되었습니다.